

논 술 고 사 문제지

<사회과학계/커뮤니케이션학부>

수험번호		지 원 모 집 단 위		성 명	
------	--	----------------	--	-----	--

■ 유의사항

1. 제목은 쓰지 말고 본문부터 시작할 것.
2. 답안 분량은 띄어쓰기 포함한 글자 수임.
3. 답안 작성 필기구는 반드시 흑색 또는 청색 펜이나 연필 가운데 통일된 한 종류의 필기구만 사용하여야 함.
4. 답안이나 답안지의 여백에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답안 이외의 불필요한 낙서나 이와 유사한 표현 또는 표시를 한 경우에는 0점 처리함.

<문제 1: 40%, 800~1000자>

제시문 [가] [나]의 논지를 비교 대조하고, [다]의 관점에서 그 중 한 입장을 지지하는 논의를 전개하라.

[가] 자본주의 사회의 시장 경제 체제에서 개인은 자유롭게 경쟁한다. 자유로운 경쟁 속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자신의 몫이 달라지고, 이를 위해 더 효율적으로 결과를 내려고 하기 때문에 창의성과 생산성이 그만큼 증가한다. 이렇듯 자유 경쟁에 따라 창의성과 생산성이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생활수준이 향상되었다. 그러나 사회 구성원 간에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의 분열과 사회 구성원 간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은 모두 인간답게 살 권리를 가지며, 현대 국가는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고 분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사회보장정책,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을 실시하는 것이 그 예이다. 이렇듯 복지 제도는 분배 정의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으며,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분배 정의를 실현하는 복지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의 제도적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 『고등학교 도덕』 교과서

[나] 서구 사회에서 통제 범위를 벗어난 환경 때문에 발생하는 극한적인 빈곤과 기아로 위협받는 사람들을 위한 구제는 오래전부터 공동체의 의무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우선 이러한 필요를 공급했던 지역시설들은 도시의 성장과 사람들의 대규모 이동이 과거의 근린유대(近隣紐帶)를 해체시키면서 부적합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들은 국가적으로 조직되어야 했고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특수기관들이 만들어져야 했다. 현재 우리가 공적 부조, 또는 공적 구제로 알고 있는 것은 모든 국가들에서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는데, 이것은 단지 과거의 빈민법이 현대적 조건에 적응한 것일 뿐이다. 산업사회에서 그러한 시설의 필요성은 절망적 상황으로부터 보호를 요구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기까지는 가장 일관된 자유의 수호자들에게도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다. [...]

이전 시기의 사회적 문제들은 부의 성장으로 점진적으로 사라지지만, 우리가 도입한 치료방법은 모든 미래의 개선이 의존하고 있는 지속적인 성장에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다. [...] 비록 우리가 빈곤, 질병, 무지, 불

결, 나태를 조금은 빠르게 정복할 수는 있을지라도, 인플레이션, 과중한 조세, 교육에 대한 점증하는 정부의 지배, 지나치게 자의적인 권력을 지닌 사회 서비스 관료로부터 주요 위험들이 분출할 때 앞으로 우리는 이 싸움조차 잘해 나갈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들은 개인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피할 수도 없으며, 과도하게 확대된 정부기구의 힘은 그것을 완화시키기보다는 증가시키기 쉽다.

-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자유헌정론』

【다】 최소한의 정부에서 사회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 로크와 칸트의 전통을 이어받은 롤스(John Rawls)는 모든 개인적 조건들을 잊게 하는 ‘무지(無知)의 베일’이라는 가상적 장막을 제안한다. 무지의 베일 뒤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자연적 능력과 성격, 사회에서의 위치, 태어난 역사적 시기 등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다. 이러한 요인들을 모른다면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취급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원칙을 선택할 것이다. 내가 정원사인지, 대기업의 사장인지, 권력을 가진 정치가인지, 또는 환경 운동가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공평하지 않을 수 있을까? 무지의 베일 뒤에 있는 사람들은 일차적으로 개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게 할 것이고, 다음으로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을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이 경우 사회에서 가장 혜택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재화를 불평등하게 분배해 주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즉 모든 사람들이 그 능력과 환경에 상관없이 생존을 보장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손해가 베풀어져야 한다. 물론 자유의 보장이 이익의 보장보다 근본적이다. 즉 자유가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위해 희생될 수는 없다.

- 『고등학교 생활과 철학』 교과서

<문제 2: 60%, 1300~1500자>

제시문 **【다】** **【라】** **【마】**는 그림 **【나】**를 보고 지은 글이다. **【가】**의 논지를 활용하여 **【다】** **【라】** **【마】**에 나타난 **【나】**의 수용과 창작 과정의 특성을 변별적으로 논의하라.

【가】 일상생활의 단조로움에서 벗어나 감동적인 연주를 들을 때, 위대한 시인의 시를 음미할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무아지경(無我之境)에 빠지거나 황홀감을 느끼기도 한다. 이때 우리는 아름다움에 대한 경험을 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경험은 개인의 취향과 능력 또는 개인이 속한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맛볼 수 있는 경험이다. 그것은 어떤 이성적 사유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도덕적 경험은 더더욱 아니다. 그것은 개인적 목적의 달성이나 어떤 이해관계를 떠나서 즐거움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경험으로서 감각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 물론 감각적 경험의 질, 즉 경험의 깊이와 넓이는 경험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의 성격과 그것에 반응하는 사람의 미적 능력에 따라서 다양하다.

미적 경험은 과학적으로 분석되지 않고 도덕적으로 설명될 수도 없지만, 어떤 가치를 갖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어떤 가치가 미적 경험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가? 동일한 대상에 관하여 개개인이 갖는 미적 경험이 다르듯이, 개개인이 미적 경험으로부터 도출하는 가치는 다르다. 예컨대, 무용을 감상할 때,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율동이 전해 주는 즐거움만을 만끽하지만 다른 사람은 무용가의 몸짓을 통해서 세계를 향해 절규하는 인간의 내면적인 모습을 보기도 한다. [...]

예술은 경험의 강렬한 표현이다. 예술은 일상생활의 평범하고 상식적인 경험과 유리되어 있지 않다. 듀이에 의하면, 경험은 살아있는 유기체와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이다. 그렇다면 미적 가치는 삶의 모든 국면에서 발견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원시사회에서의 예술은 집안에서 쓰는 물건이나 개인적 장신구와 같은 흔한 대상물과 연결되어 있다. 우리의 과제는 미적 즐거움과 삶의 일상적 경험 사이의 계속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물론 모든 경험이

예술 작품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예술적 창조는 예술가가 자신의 개성, 지식, 상상력 등을 경험에 투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예술은 경험에 상징적인 변형을 덧붙임으로써 경험을 보다 깊고 강렬하게 만드는 작업이다. 즉 예술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통해 통일성, 의미, 조화, 완성을 발견하게 하는 특별한 종류의 경험이다. 그런 경험은 삶의 거의 모든 활동과 연관되어 일어날 수 있다. 그것은 석양을 바라보면서 반응하는 것일 수도 있고, 꽃을 보면서 느끼는 경험일 수도 있다. 가장 개인적 창조의 표현까지도 예술적 경험에 속할 수 있다.

— 『고등학교 생활과 철학』 교과서

[나]



— 김정희, 「세한도(歲寒圖)」

[다] 이런 말이 전해온다. “하늘은 사람이 추위를 싫어한다고 해서 겨울을 끝나게 하지 않으며, 군자는 세상이 어둡고 혼탁하다고 해서 그 행동을 바꾸지 않는다.” 어찌 바꾸지 않기로 하겠는가? 오히려 더욱 굳게 지킨다. 굳게 지켜야만 세상이 융성하거나 쇠퇴해도, 사람의 운명이 평탄하거나 역경에 처해도 개의치 않게 된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 뒤로 물러서야 할지 살아남아야 할 것인지 목숨을 버려야 할 것인지를 헤아려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 사람은 군자뿐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겨울이 되어서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시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것은 소나무와 잣나무가 굳은 절개를 지니고 있지만 눈서리를 맞지 않았을 때에는 사람들이 대부분 소홀히 여기므로 그 절개를 알아보기 어렵고, 등용하는 경우도 적다는 것을 너무나 안타까워하신 것이다. 비록 소나무와 잣나무가 시들지 않는다 해도 그것이 겨울에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다. 군자가 소나무와 잣나무의 절개를 배우고자 한다면, 겨울이 닥치기 이전의 절개를 먼저 배워야 한다. 그들은 절개를 늘 지니고 있으므로 사시사철 바꾸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저 보통 화초들이라고 해서 겨울이 되면 소나무와 잣나무처럼 되기를 어찌 바라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평소 그 절개가 견고하지 않아서이다. 평소에 절개가 견고하다가도 다급한 순간에 변하는 사람도 있지만, 평소에도 절개가 견고하지 않은데 다급한 순간에 변하지 않는 사람은 들어보지 못했다. 그러니 군자가 소나무와 잣나무의 절개를 배우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절개를 높이 세우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세상을 오만하게 보려는 것이 아니라, 자칫하면 보통 잡초들과 같은 무리가 될까 걱정되어 그러는 것이다. 스스로를 굳세게 단련시키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옛날 사람들을 본받고 싶어 그러는 게 아니라, 자칫하면 자신의 높은 뜻을 잃어버릴까 염려하여 그런 것이다. 산속 바위틈에서 늙어가면서도 고독하다 여기지 않는 것은 그 재목을 길러 쓰임에 대비하기 때문이다. 목수에게 버림받아도 원망하지 않는 것은 나의 참모습을 보전하여 천수를 누리기 때문이다. 겨울이 되지 않으면 보통 화초와 다를 게 없고, 겨울을 여러 번 거쳐도 그 나뭇가지는 조금도 다르지 않다. 세상에 그 절개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도 소나무와 잣나무는 그대로이고, 세상에 그 절개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소나무와 잣나무는 그

대로이다. 그러므로 한겨울이 되어서야 그 절개가 드러난다고 소나무와 잣나무가 즐거워할 일은 아니며, 한겨울이 되어서야 그 절개를 알게 된다면 소나무와 잣나무를 깊이 아는 사람이 아니다.

— 장악진, 「세한도 제영(題詠)*」

[라] 추사는 문득 겨울 한파와 적막과 침잠 속에서 다사로운 몸피를 둥그렇게 키우고 있는 우주의 시원을 형상화시켜보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그림 한 폭이 머리에 그려졌다.

설 전후의 고추 맛보다 더 매운 찬바람이 몰아치자, 모든 짐승과 새들은 모습을 감추고, 푸나무들은 죽은 듯 말라져 적막하건만, 건장한 소나무만 푸른 가지를 뻗은 채 우뚝 서서 제 몸을 지탱하기 힘들어하는 늙은 소나무 한 그루를 부축하고 있다. 그 부축으로 말미암아 늙은 소나무는 간신히 푸른 잎사귀 몇 개를 내밀고 있다. 그 두 나무 옆에 집 한 채가 있는데 그 집은 마음을 하얗게 비운 유마거사처럼 사는 한 외로운 사람의 집이다.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앓고 있는데 어찌 깨달은 자가 앓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며 칭병하고 누운 채, 문병하러 오는 불보살들에게 불가사의 해탈의 진리를 설하는 유마거사. 그는 일체의 탐욕으로부터 벗어난 손님들에게 깨달음의 세계를 보여줄 심산으로 그의 집 거실을 텅 비워놓았다.

세한 속에서 얻은 불가사의 해탈의 무한 광대하고 둥근 깨달음[圓覺]은 텅 빈 하늘을 흡수지처럼 빨아들이는 신묘한 힘이다. 수미산을 겨자씨 속에 넣고, 세상의 모든 바닷물과 강물들을 한 개의 털구멍 속에 다 쫓아넣을지라도, 수미산과 겨자씨와 사해의 물과 털구멍들이 모두 끄떡도 안 하는 그 신묘한 힘은 공자와 맹자의 어짊과 안빈낙도와 노장의 무위와 다르지 않다. 그 힘은 그 집의 주인으로 하여금 장차 병에서 일어나 중생들과 더불어 살게 할 터이다.

— 한승원, 『추사』

[마] 골재 채취한다고 산 한쪽이 뭉텅 잘려나가고

아물지 않은 상처처럼

붉은 절개지는 겨울이 다 가도록 흉하게 드러나 있다

그 위 언덕에는 잎이 붉게 변하며 말라가는 소나무 몇 그루

소나무 가지에 걸린 달이 협곡으로 빠질 때

병든 가장(家長)이 식구들 없는 빈집에서

혼자 남아 기침을 하고 있다

— 장석주, 「세한도(歲寒圖)」

*제영(題詠): 정해진 제목에 따라 지은 시. 추사 김정희로부터 「세한도」를 선사받은 제자 이상적이 그림을 갖고 청나라 연경에 가서 장악진 등 청조문사들에게 보여준 다음 여러 편의 제영을 받았음.